## 사 설

### 평화 만들기 서원하는 봉축을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 왔다. 전국의 사찰에서는 연등을 만들고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봉축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신행단체들도 봉축 행사 준비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봉축위원회도 연등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연일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올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마음이 예년과 달리 '무겁다'는 불자들이 많다. 이라크 전쟁과 괴질 공포, 경제 불안 등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축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불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우기 위해 오셨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 한 켠에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행의 궁극이라 할 깨달음은 전쟁과 질병, 범죄와 같은 악한 인연을 제거하는데서 열리기 시작한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절신한 것은 평화의 실현이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건 전쟁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기에 하루 속히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 만들기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올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행해지는 봉축 행사들도 모든 중생의 평화 실현 의지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기획할 것을 권하고 싶다.

### 삼보일배를 주목하라

세상이 화택(火宅)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쟁회오리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다. 탐진치로 인한 처참한 살육의 장을 대다수 세계인들은 그저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전쟁 반대, 생명 ·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진행, 절절한 참회의 장(場)이 되고 있다. 3월 28일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시작된 삼보일배에서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는 두 달동안 305km의 거리를, 세 걸음마다 오체투지 발로참회하며 전쟁 반대와 새만금 살리기를 호소하고 있다. 장장 7백리에 달하는 고난의 행군은 5월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향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종교 · 환경 단체는 물론 세계의 환경가들은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인 천혜의 자원 새만금의 간척사업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개발에 엄청난 거금이 투입되었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이유 등으로 갯벌간척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역대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 무차별 환경파괴로 인한 과보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나타날지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이번 '삼보일배'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 원불교 교무 등 여러 종교인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근의 사찰과 성당, 원불교 교당 등에서 삼보일배에 직접 참여(일정 거리)할 뿐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등 힘을 모아주고 있어 뜻깊다. 우리 종교인들이 마음을 합해 간절하게 하는 참회기도가 인류평화 정착과 상생(相生) 정신 확산에 일조하리라 믿는다.

현 정부도 하루빨리 '새만금 삼보일배'에 담긴 간절한 염원을 읽고 공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조계종 사미(니) 226명 배출

## 24기 행자교육 40대 입교 42% 승가고시 합격 218명 수계

◇조계종은 3월9~31일 범어사에서 24기 행자교육원을 열고 226명의 사미(니)를 배출했다.

### 25기부터 연령제한…40세이상 입교불허

### 선학원 행자 8명도 사미(니)계 수계

40대 이후 출가자에게 마지막으로 입교가 허용된 조계종 제24기 행자교육원이 3월31일 회향했다.

범어사에서 열린 이번 행자교육원에서는 남행자 197명, 여행자 98명 등 모두 295명의 행자가 입교지원을 해 이 가운데 남행자 56명, 여행자 13명 등 69명이 서류심사와 입교갈마 및 입방고사에서 탈락하고 남행자 141명, 여행자 85명 등 226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또 이들 226명의 수료자 가운데 남행자 3명 여행자 5명 등 8명이 행자교육원 마지막 날 치러진 5급 승가고시에 불합격함으로써 최종 77명이 탈락하고 218명만이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번 수계식에서는 선학원 행자 8명도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처럼 불합격률이 높은 것은 행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입교 절차와 5급 승가고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자교육원은 전체 입교자 중 40대 이상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탈락자 가운데 이들 40대 이상의 비율은 60%나 됐다.

교육원은 고령 출가자로 인해 행자교육의 효율이 떨어지고 승가의 자질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40대 이하로 출가연령을 제한했다.

그러나 40대 이상의 발심출가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열린 종회의 교육원 종정감사에서 40대 이상 발심 출가자에 대한 대책 및 보완에 대한 연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서울·인천 지하철역 봉축등·현수막 건다

서울과 인천 등지의 지하철역사 내에서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와 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청년회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과 인천 69개 지하철역사에 봉축등과 현수막을 건다.

지하철 역사내 봉축등 달기 사업은 지하철역 마다 30개의 연등과 2개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봉축등과 플래카드가 걸릴 지하철 역사는 1호선 종로3가 · 종각역 등 5곳을 비롯해 2호선 시청 · 신촌 · 동대문운동장역 등 10곳, 3호선 충무로 · 안국역 등 7곳, 4호선 혜화 · 명동역 등 6곳, 5호선 광화문 · 공덕역 등 14곳, 6호선 합정 · 삼각지역 등 8곳, 7호선 건대입구역 등 8곳, 8호선 잠실 · 모란역 등 5곳, 국철 부평 · 수원 등 6곳이다.

박봉영 기자

# "군불자에 봉축위문품 보내자"

## 군불교진흥회 월말까지 캠페인 벌이기로

군불교진흥회(이사장 정각)는 불자 군장병들에게 봉축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봉축위문품 보내기 운동은 육 · 해 · 공군 2만여 불자 군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문품 안에는 각종 과자류와 음료수, 단주, 법문이 담긴 소책자 등이 담겨있고, 개당 2,500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된다.

위문품은 군법사 없이 군종병이 운영하는 법당에 우선적으로 전달되며, 자녀를 군대에 보낸 경우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지정 기탁도 가능하다.

군불교진흥회 이사장 정각스님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02)749-5135 남동우 기자

### 통일·환경·인권·여성·노동분야 등

#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 조계종, 23일까지 접수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계 시민 ·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2003년 불교 시민 · 사회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불교 시민 · 사회단체 공모사업은 통일 · 환경 · 인권 · 여성 · 사회개혁 · 노동 등 각 분야의 실천 및 연구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 단체당 1개 공모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총무원 사회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공모사업 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02)735-5864

남동우 기자

### 첫 군불교찬불가 합창제

### 11일 국방회관 태극홀서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내 국방회관 태극홀에서 제1회 군불교 찬불가 합창제를 개최한다.

올해 부처님 오신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군불교 찬불가 합창제는 원광사 · 보라매 · 1군사령부 · 계룡대 합창단 등 4개 합창단과 사병 중창단, 독창 등으로 나눠 열린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3주년 기념법회도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 일제때 불교문서 · 자료

### 조계종, 목록집 발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던 일제시대 불교 문서와 자료가 책으로 나왔다.

조계종은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서 목록을 한글로 정리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 종교관련 일제시대 문서 및 자료 목록집>을 펴냈다.

이 목록집에는 각 사찰에 대한 총독부의 사찰창립허가, 사유림벌채허가, 사유건물수선승인, 사유토지매각허가원, 사유토지기부허가원 등 사찰관련 서류 목록이 담겨져 있다. 조계종은 이 목록집을 통해 현재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통일 이후 연고권 확보와 일제시대 이후 소홀한 관리로 망실된 삼보정재 환수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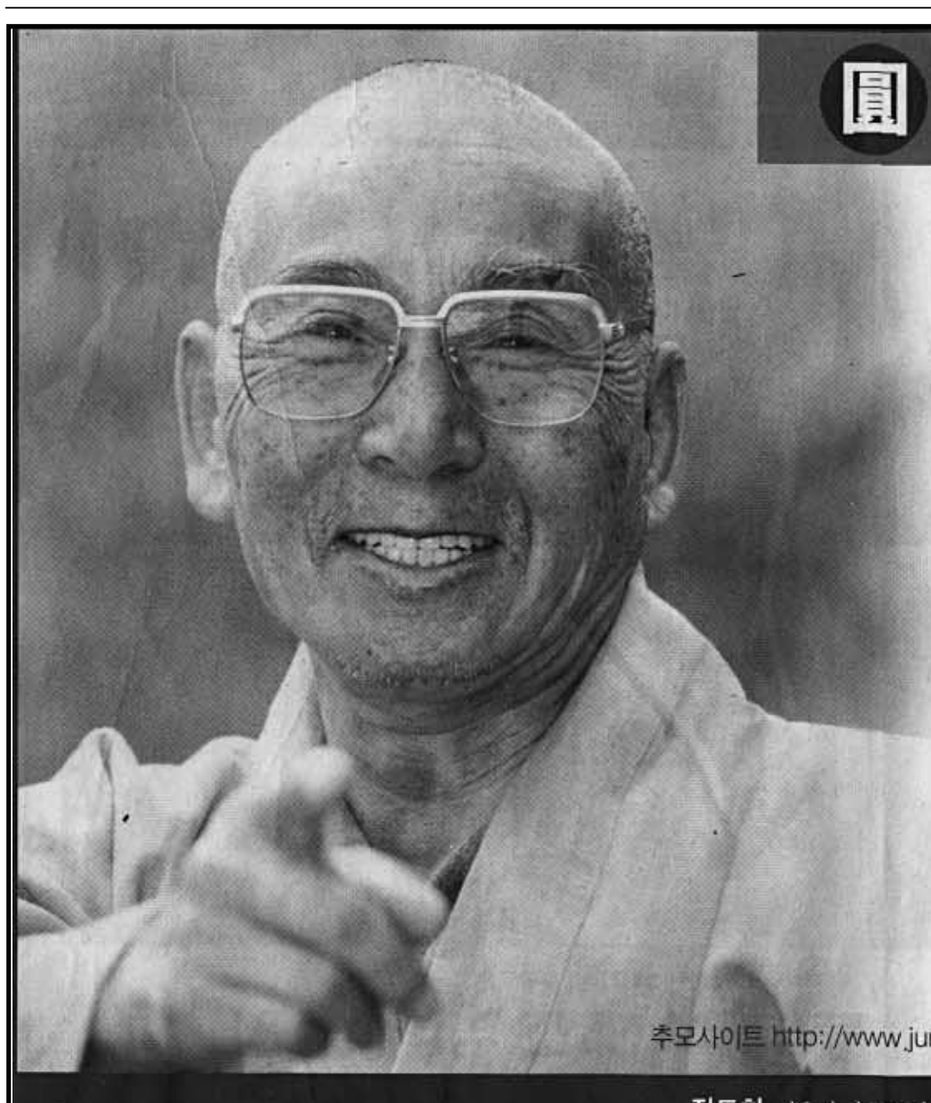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 '현 대' 만 평

김 영 민

재가불자 위상 새롭게

圓 前 조계종 종정 서암당(西庵堂) 홍근(鴻根) 대종사 寂



만 마디 질문에 한 마디로 답하신 분
만 가지 말보다는 한 가지 행 더 중히 여기신 분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가신 서암 큰스님!
정토세상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재단법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法輪)
대 표 유수(濡首) 합장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스님의 열반송을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래도 한 평생 사시고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할 말 없다."
그래도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달리 할 말이 없다.
정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

추모사이트 http://www.jungto.org/seoam

서암 큰스님 추모 법어집

자기부처를 찾아 선사상의 진수 I
어디에도 걸림없네 선사상의 진수 II

눈앞에 빛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부처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가든지, 오든지, 변소에서 대변을 보든지,
심지어는 멱살을 쥐고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부처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자기 부처를 똑바로 봅시다.
- 서암 큰스님 말씀 중에서 -

정토출판 전화 02)587-8992 전송 02)587-8998 Email : book@jungto.org

정토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 대표전화 02)587-8990 | 대표전송 02)587-8998 | http://www.jungto.org